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2쪽(붙임 없음)
배포일시	2021. 6. 9.(수)	담당부서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
담당과장	김경화(044-203-2831)	담당자	사무관 전수련(044-203-2832) 주무관 김성관(044-203-2833)

관광업계와 함께 여행안전권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

- 문체부 장관, 관광업계 간담회에서 국제관광시장 재개 및 회복에 노력 약속 -

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황희 장관은 6월 9일(수) 오후 4시 프레스 센터에서 여행안전권역(트래블 버블)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국제관광시장 재개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.

이번 간담회에는 싱가포르, 구미주 등 국내(인바운드) 여행사와 호텔, 국적항공사, 체험관광업체 등 관광업계 대표와 관광 유관 기관 관계자 15명*이 참석했다. 참석자들은 중대본에서 오늘(6. 9.) 발표한 ‘예방접종 완료자 국가 간 이동 시 격리 면제’와, 특히 먼저 시행되는 방역신뢰국가와의 여행안전권역(트래블 버블)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- * (여행사) (주)서신국제 김정애 대표, 정호여행사 정현일 대표, RYE 투어 김화경 대표
- (항공사)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,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
- (호텔)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강남 유춘석 대표이사, 뉴서울호텔 최공명 총지배인
- (체험관광업체) 오미요리연구소 김민선 대표, (주)한복남 박세상 대표,
- (협회)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운영호 회장,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,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중 회장
- (유관 기관)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, 문화관광연구원 김대관 원장,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본부장

여행안전권역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단체관광에 대해 허용하고 방역관리 및 단체관광상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‘안심 방한관광상품’으로 승인받은 상품만 관광객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.

‘안심 방한관광상품’ 승인은 「관광진흥법」상 관광사업(일반여행업) 등록 여행사,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신청할

수 있다. 상품 구성안과 방역전담관리사*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, 방역 지침준수 약속서, 기존 경영현황 및 방한관광 추진 현황, 해당국 협력 (파트너) 여행사 정보 등을 넣어 승인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품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후에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.

*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,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 주기적으로 확인, 보고

아울러 황희 장관은 지난 3월 3일, 인천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열린 ‘국제관광시장 회복 준비 특별 전담조직’ 출범회의에서 방한관광시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제관광시장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.

문체부는 국제관광 재개를 대비, 한국관광공사, 한국여행업협회와 협력해 방역기준을 준수한 ‘안심 방한관광상품 지침’을 마련했다. 아랍에미리트 의료관광 홍보 여행(5. 23.~28.)과 인도네시아 포상 관광(6. 10.~16.)을 통해 안심 방한관광 상황도 재점검하고 있다. 향후 여행안전권역 시행국가를 대상으로 여행업자, 방한여행 기획자, 매체, 유력인사 등을 초청하는 ‘방한 점검 여행’을 추진해 안심 방한관광 안정성과 매력도를 확인하고 홍보·마케팅을 할 방침이다.

관광업계의 관광상품 구성 등 국제관광 재개 준비를 돕기 위해 한국관광 데이터연구소(랩)*를 통해 해외 주요국가 입출국 조건, 백신접종률, 관광 시장 동향 등 국가별 코로나19 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.

* <https://datalab.visitkorea.or.kr/datalab/portal/cvd/getCvdSittnForm.do>

황 장관은 “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공동으로 함께 노력해 도출해낸 결과”라며, “관광 재개의 첫 번째 조건은 ‘안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’로서의 한국 관광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. 철저히 방역을 관리해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간담회 사진 별도 배포

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
국제관광과 사무관 전수련 (☎044-203-2832),
주무관 김성관 (☎044-203-2833)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